

#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서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경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디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 nmaum

# “세세생생 좌우할 이 한철살림 중요”

17면에서 계속

기 아들 눈에 자주 띄면서 저절로 입력 이 됐던 모양입니다. 나중에 스스로 문제 해결할 줄 알고 스스로 관하면서 살더라도 하면서 아주 고마워해요. 하지만 그게 어디 내게 고마워 할 일입니까? 자기가 자기 뿌리를 믿었으니 그런 거지, 안그렇습니까? 그러나 이 마음의 도리를 활용 할 줄 아신다면 훨씬 사는데 편리할텐데,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보배를 자기가 응용해서 쓰지 못하고 바깥으로 끄달리기 때문에, 자꾸 내가 모자란다는 생각에 남한테 무엇을 물어봐야 하고, 책을 찾아야 하는 등 불편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약도 선도, 행도 불행도, 차원도 다 자기가 한 대로 주어지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각자 자기가 한 대로니까 남 탓하

서 가르치기 위한 방편으로써 번연히 하는 것도 또 그 길을 되짚어야 했더라 이겁니다.

보이는 데서는 이 컵이 컵으로 있지만 안 보이는 데서는 이 컵이 사람도 될 수 있고, 군사도 될 수 있고, 컵 속의 물이 바다가 될 수도 있고, 천차만별로 화해서 찬백이 화신으로도 나뉘어 쓰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현행이예요. 부처님은 그 능력을 배출할 뿐, 법신은 법신대로 행을 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부처고, 생각을 했다 하면 법신이고, 몸을 움직여줬다 하면 보현신이란 애입니다. 보현신으로 화해서 응신이 되신다 이런 뜻이죠. 우리들도 부처님과 더불어 다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 라는 걸 알면서도 항상 고정되게 위축돼서 '아유,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해. 이런 건 도저히 난

## “마음을 태평하고 지혜롭게 쓰면서 ‘너무 용렬하게 살지말자’ 널찍하게 산다면 병도 안걸려요”

지 말고 어서어서 벗어나서 좀 시원하게 살아라 하고 일러주셨습니다.

닭이 왜 사람으로 부화를 못하는지 아십니까. 닭으로 살던 습이 썩고 썩어서 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습 때문에, 돼지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 다 그래요. 우리도 그런 습성을 다 거쳐왔습니다. 그래서 사람까지 이르렀는데 사람도 천차만별로 차원이 있으니 이것을 어찌 합니까. 그러니까 '한생각을 잘하라'고 말합니다. 보는 순간 듣는 순간 한생각 잘하면 그게 법이 된다 이 소리예요. 법이 되면 한발짝 떼놓지 않고도 보살 응신들이 다 해결을 하게거든요.

우리는 지금 한발짝 떼어놓지도 않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본래가 떼어놓은 바가 없어요. 그렇게 마음은 직결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걸 '나'는 할 수 없고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라고 고정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참나를 화해서 나두고 끝없이 돌아가는 이 진리를 파악한다면 우리가 할 것 다 하면서도 힘이 없이 한 것이 되죠. 항상 말하지만 여기 올라올 때 한 발 떼어놓고 한 발 없애지고 한 발 떼어 놓으면 한 발 없애지죠. 우리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런 삶이죠. 그러나 그 법자국 떼어 놓는 동안에 어떠한 법자국을 떼어 놔다고 말하겠습니까? 어떤 발은 떼어 놓을 때 내가 했어? 어떤 발은 떼어 놓을 때 내가 안 했겠습니까? 떼어 놓은 대로 없어지는 것을, 활내에도, 지금 내가 말을 하면서도 과거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기 이전에 지금 바로, 과거와 미래의 교차로인 현재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했으니, 지금 한 생각을 잘 하면 구정됨이 새 물로 바뀌어져 새 것이 풀려나오게 돼 있습니다.

실천을 해 보십시오. 내 몸 속에도 많은 생명들이 있으니 더불어 한마음으로써 진리를 알아야 하고 선과 악에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보이지 않는 물의 세계에서 용범으로 힘이 없이 할 수 있는 도리가 있다면 어떠한 거든지 손색이 없을 겁니다. 자기가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부처님이 계시고 일체제물이 계신다 하더라도 그것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실천을 해서 감응이 되고 감응이 되면 한생각 해보시고 아, 이렇게 가는 거로구나 하고, 또 상대를 만나보면 내가 차원이 얼마나 됐는지도 알게 됩니다.

이런 공부는 부처님 당시부터 가르쳐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한 철 사는 동안에 하는 공부가 세세생생을 얻을 수 있는 도리예요. 우린 지금 교차로인 중세계에서 한철 살다가 몸을 벗지 않으면 안되게 될 것거든요. 부처님께서도 '왜 사람은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고에서 허덕거리다가 죽어야 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를 하셨죠. 생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이 도리로 나왔는데 그건 과거로부터 이리 나서서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보여

할 수 없어.' 이렇게 하나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다는데 이 속의 생명들의 의식들도 할 수 없다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할 수 없다 하면 이 생명들이 다 할 수 없고, 또 이 생명들이 다 할 수 없다면 바로 일체제물에도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양면의 다 버리면서 흡수하고 흡수하면서 버려야 됩니다. 처음에는 항상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내 안에 자발, 불성이 있는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믿고 공부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나가 있는 줄 알아야 하고, 참나가 있으니까 그걸 믿고 여려한 줄 알아야 하고, 또 여려한 줄 알았다면 갖추어가지고 있는 걸 알아야 하고, 갖추어가지고 있는 걸 알았다면 일체 만법을 가지고 내는 걸 알아야 하고, 그렇게 해서 끝없이 해도 힘이 없이 하는 도리를 알게 되면 구경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한철 사는데 뭐이 그렇게 아동바중 살려고 애를 쓰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뭐가 탁 떨어져서 깨졌다 하더라도 '그거 뭐 이 세상에 몸도 깨지고 죽고 하는데 뭐 걱정이야, 걱정하지 말아.' 이렇게 살면 편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공



그림 · 최추현

양고 병원에서 다리를 자르라고 했습니다. 스님 법문을 접하기 삼년 전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스님 말씀대로 열심히 관하고 공부했다니 지금은 다 나아서 이렇게 걸어도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님, 이 감사한 마음 어떻게 말로 다 할지 모르겠습니다.

Q 그 원리가, 내 자발 주인공에다 말하고 '넌'이 할 수 있어' 할 때 대뇌로 올라가서 사대로 통신이 되면 그 내면속의 생명들이 작용을 해주게 됩니다. 어떠한 악조건이라도 다 작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폐가 아프다면 그 폐의 소임을 맡은 직원들이 작용을 해주고 간이 아프다면 간의 직원들이 작용을 해줍니다. 길이 관하게 되면 사대로 통신이 돼

하게 되면서 인간으로서 가장 맛있는 길이 출가를 하는 것이로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책을 통해 공부는 하고 있지만 아직은 제 사탕심이 너무 많고, 과연 출가를 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결혼해서도 공부를 잘할 수 있을지 마음의 갈등이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스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A 공부하는 것은 출가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떠나서 공부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출가를 해야 몸종이만 출가한다고 되는게 아니거든요. 출가를 하는 것은 가정을 버려야 하고 형제들이나 부모님에 대한 애착도 버려야 하고 안에 들어와서는 나도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철 살다

걱정말라고 했더니 걸지도 못했던 아이가 사흘만에 푹 푹 털고 일어나더니 밥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만큼 믿었기에, 물 아끼게 믿었기에 그렇게 될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 공부를 물려서지 않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꼭 성 불할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얇은 물에 뜰려면 적은 배가 되고 깊은 물에 뜰려면 큰 배가 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만 세상 살기가 여유롭겠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어도 우주 공간에도 다 우리를 마음의 근본이 살고 있습니다. 물론 별정처 우주에서도 우리는 살고 있고 또 흔하게 생 산처에서도 살고 있고, 또는 북두칠성 거 기에서도 우리 생사를 논의하고, 또 한마 음이러면 달과 별과 해도 물이 아닌 까 닭에 거기에다 우리가 있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이 진리속에 모두가 결부돼서 돌아가니까 우리 마음이 만약에 티끌 하나라고 하더라도 그 티끌 하나에 다 들어 있다는 애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적은 배가 되기도 하고 큰 배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자유자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 법에 의해서 바로 티끌 하나에도 이 우주 삼라대천세계가 다 들어있고 우리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이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므로 보살의 이름이라 할지라도 진짜 실천은 힘이 없이 하는 거죠. 힘이 없어야 할 줄 아니까 보살이라는 이름이 주어지지 않죠.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도 바로 여러분 몸종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깊은 마음 속에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나가는 개미하고도 대화를 하고 돌이나 나무하고도 대화를 합니다. 내 몸은 가만히 있는데, 생각을 하게 되고 때로는 보게도 되고 만지게도 되고 대화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렇다면 심심할 게 없죠. 그래서 어딜 가자고 해도 심심할 게 없고 그래서 그냥 지내기도 하고 때로는 나가기도 하죠. 이것이 모두 삶의 자유니까요.

지장보살님이 문고리를 잡고선 아무다 들여보내고 자기가 들어갈려고 해도 그칠 줄 모르고 문고릴 잡고선 영 들어가 지 못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는 누가 아픈 것을 계기로 오신 분들도 많겠지만 낫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건 단지 공부할 수 있는 재료일 뿐,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됩니다. 그런 체험으로 자기 주인공을 믿게 되고, 그런 믿음에 있으면서 어떠한 거든지 주인공에만 일임한다면 업보성이나 영계성 또 유전성, 인과성, 세균성도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수해서 물 아끼게 응용한다면 그것이 평 등공법이요, 그 평등공법에서 천차만별로 나가는 갈래갈래를 다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보배가 되니까요.

### 참선하면 안면 부풀어

문 저는 7개월 전부터 신형요전을 문 독송하고 참선을 거의 매일 빠짐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선할 때마다 앙입술이 바람에 부풀어 오르는 듯한 느낌이 들기 시작하니까 안면 전체로 그런 느낌이 확산되고 위 아래까지 전기가 통하는 것 같이 빠근하면서 머리를 양쪽에서 무엇이 짓누르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몸 전체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3개월 되었습니다.

참선이란 것은 일 할 때나 쉬 있을 때나 참선입니다. 좌선만이 참선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참선이 아닙니다.

지구는 쉴 사이 없이 도는데 앉았다 일어나면서 참선을 다 했다고 생각한다면 진정한 참선이 아니지요.

행선 좌선 좌선 입선이 함께 다 참선이 되어야 합니다. 참선을 바로 하시려면 나의 일상생활 일거수일투족에서 그것이 자신의 깊은 내면 한마음에서 나오는 것 인줄을 알고 다시 굴러서 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몸종이 속의 수많은 생명체들은 공생 공심 공체 공용 공식하고 있으므로 행주좌와 중에 일체를 내면 정심에 다 돌려 놓는다면 그것이 참선이요, 참 목선입니다. 그래야 번소에 가는 일까지도 참선이 됩니다.

지금 겪고있는 일도 바로 내면의 자성 불 주인공에다가 '너만이 그렇게 앉게 할 수 있어' 하고 굴러서 놓으세요. 일차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천도재 지내는 꿈꿨어요

문 선원별 나간지 얼마 되지 않았습 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한달에 두세번씩 꿈에 스님을 보고 때로는 모시고 꾸러 가기기도 하고 천도재를 지내는 꿈도 꾸곤 합니다. 그래서 천도재를 지내 라는 뜻인가 보다 하면서도 염두가 나질 않습니다.

부도를 맞는 바람에 생활이 어렵습니다. 가르침 바랍니다.

A 꿈에 누굴 보았다 해도 그것은 자신의 자성불이 화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성불이 당신에게 일러주는 것이니 알아서 하세요.

꿈도 현실이고 현실도 꿈과 같은 것이니 오직 자신의 내면 자성불, 즉 주인공이 하는 것으로 믿어 일거수일투족을 몸 록 굴러서 놓으세요. 잘 되는 것은 감사 하다고 놓고, 안 되는 것은 '잘 되게 하는 것도 주인공 너 아니냐' 하고 굴러서 놓으세요.

제 나무의 제 뿌리를 믿고 의지하세요.

'관' 하는 중 벽력같은 소리가...

문 스님께 삼배 올리면서 또한 불교 TV에 감시드립니다. 요즘 불교TV를 통해서 새벽, 저녁예불을 모시고 있는데 며칠 전 일입니다. 새벽시간에 좌선을 하면서 주인공 자리를 관하고 있는데 문득 '보이는 사람 없고 듣는 사람 없다'는 소리 아닌 소리에 마음의 눈이 뛰어짐을 느꼈습니다.

또한 전에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일법시 시군산이니 이 도리를 알라' 라는 벽력같은 소리에 깜짝놀라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그후로 '일법시 시군산' 의 뜻을 알고자 경전을 찾아 보았으나 알 수 없었고 주인공 자리에 관했으나 스치는 느낌뿐 아직까지도 뚜렷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A 당신을 대신해서 내가 밥을 먹어 줄 수는 없지요. '일법시 시군산' 이 무어냐고 당신의 자성불 주인공에게 관 해 보세요.

생활 자체가 공부의 재료이고 도의 길 인줄은 아실 겁니다. 또 당신을 지키고 이끌어가는 주인공만이 힘이 없이 지체 하니 제 나무는 제 뿌리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한구멍 내면치 리에 놓고 관해 보시기 바랍니다.

## “부처님이 옆에 계셔도 대신 살아주지 못해” “자성불 믿고 맡기면 ‘나’ 완전히 버리게 돼”

부한다고 그래서 닥칠 게 안 닥치는 건 아닙니다. 닥치는 걸 어떻게 능숙하게 대처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당장 저녁거리가 없다 해도 다 살게 되겠지 하고 부지런히 나가서 찾아 보면 굶지 않아요.

옛날에 있었던 얘기지마는 그때엔 이 절이 아주 작고 가난했을 때죠. 어떤 사람이 여기에 뭘 훔치러 왔는데 형편을 보니 나보다 더 가난한 지경이예요. 그래서 쌀 한가마 반인가 있는 걸 몽땅 줬어요. 식구가 여럿인데, 쌀 수가 없으니 산 부처님을 먼저 살려야죠. 주고 나니 사시 마지때 공양 올릴 것도 없어요. 그랬는데 말입니다. 올리기 전에 쌀 세 가마니가 들어옵니다. 그게 내가 한 겁니까? 부처님이 계시면 될 거고 부처님이 안 계시면 안 될테니 걱정할 게 뭐 있냐요. '내 자발이 있으면 할 거고 없으면 안될 거고 그러니 내가 다 알아서 해라' 하고 말하고 하는 거죠.

### 아픈다리 나아 감사합니다

문 저는 스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 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환간 나이인데 어릴 때 냇가에서 뱀래하다가 다리를 다쳤는데 아무리 약을 써도 낫지를

서 대뇌로 가는데 그건 직접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무엇을 찾고 발견할 것도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뿌리가 없으면, 진실하게 믿어야 하는데 믿지 않고 바깥으로 떠돌게 되면 심부름하는 직원에게 심부름을 맡겼다 안 맡겼다 하는 이치와 같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하지만 사실은 말처럼 그렇게 잘진 않아요. 마음을 태평하고 지혜롭게 쓰면서 한철 사는데 너무 용렬하게 살지 말자 하고 그렇게 널찍하게 산다면 병도 안 걸려요. 그런데 그냥 바둑바둑 쥐고 놓칠 못하기 때문에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요. 그러니 모든 일체 만법이 다 이 마음 하나로부터 움직이는구나 하고 마음에서 나아가 돼요. 뿌리와 싸이 수레바퀴처럼 잘 굴러간다면 바로 부처예요. 달리 부처가 아니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부처라는 거, 그리고 부처님이나 역대 조사님들, 일체제물이 다 한마음에 직 결이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 출가·결혼 사이서 고민

문 저는 어릴 때부터 '가장 인간답 게 사는 게 원가'라는 생각을 해오 다가 그3때 우연히 불교에 관한 책을 접

는 건 다 마찬가지인데 이 마음공부 한 사람들은 생사 운회에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죽어도 이 자리, 살아도 이 자리. 하지만 살아 나온 자리가 없기 때문에 죽어갈 자리도 없어요. 생사 운회를 몽땅 치워버렸거든요. 내 몸종이가 공해서 없는데 그 자리에서 오는 건 어디로 갈 것이 있겠습니까. 그 뜻을 잘 생각해보시면 이 공부하는 데는 출가를 하고 결혼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열심히 진실하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줄을 아실 겁니다. 하지만 일산을 하게 되면 얽히고 설킨 문제가 적으니 공부하기가 좀 낫죠.

### 갓난애가 뇌성마비 걸려

문 저의 딸이 생후 7개월만에 뇌성마 비를 앓아서 지금껏 사람구실을 못 하고 있습니다. 스님 말씀대로 공부는 하고 있지만 디시하면 스님의 좋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A 옛날에 원주에 있을 때 어느 병원에 뇌성마비로 쓰러진 애가 있었는데 그 중 한 사람이 와서 손주를 살려달 라고 했어요. 그래서 관하는 걸 일러주고

리고 지해도 생각이. 부처님이 옆에 계신 다 해도 나를 대신해 살아주지는 못합니다. 자기 근본은 자기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겨울 나무는 가지가 앙상하지만 보이지 않게 땅 속에 깊이 뿌리를 박고 있기 때문에 불이 났을 때 새 잎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 걸 보고도 배우는 겁니다. 근본은 하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죽고 사는 것에 겁 내지 말고, 굶어 죽을까봐도 겁내지 말고 잘 살지 못할까봐도 겁내지 말고 당당하고 자유롭게 사세요. 우리가 한철에 이 도리를 다 무찌르지 못한다면 세세생생을 이렇게 풀어야 하나니까요. 때로는 하천 세계에서 짐승의 모습도 갖고, 여지도 되고 남자도 되고 고정됨이 없는데, 이왕이면 공부해서 상세계의 법신으로서, 보살로, 부처로서 이렇게 차원이 주어진다 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세세생생을 그달리지 않아도 좋고 끝났는데 없이 자유롭죠. 그러니 우리 한철이 그렇게 중요해요, 세세생생을 좌우하니까요.

하여튼 열심히 하십시오. 악과 선을 흡

법 전 박상희 서울 서대문구 흥제동